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mailto: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78호

2025년 12월 7일(가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 오늘의 미사

## 대림 제2주일

<p>▶ 1독서 : 이사야서 11,1-10</p> <p>▶ 화답송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 화가 꽃피게 하소서.</p> <p>▶ 2독서 : 로마서 15,4-9</p>	<p>▶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p> <p>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p> <p>▶ 복음 : 마태 3,1-12</p>
---	---

① 12월 21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② 12월 21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12월 봉성체 안내

12월 봉성체는 12월 18일(목, 오전) 서쪽 지역, 12월 19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④ 12월 8일(월) 오전 10:30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있습니다. 호놀룰루 교구 의무 축일이며,  
봉헌금도 있습니다.

⑤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12월 21일~27일)

⑥ 매월 넷째 주 12월 28일(일) '한끼 나눔'

⑦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사목공지



## 사목위원회

### ※ 교육분과 공지

교리교육 주제

- 12월 7일: 16과 입문성사 ①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 12월 14일: 17과 입문성사 ② 성체성사

시간: 오전 9시, 장소: 예비자 교리실

교리에 관심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구역 및 단체

### ①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12월 7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 ② 쏘렉 구역 모임

일시: 12월 9일(일) 오후 5:30  
문의: 이명노 비오 227-5630

### ③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일시: 12월 14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 ④ 다락방 모임

일시: 12월 14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룸

### ⑤ 가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12월 14일(일) 오후 5시  
문의: 황 마리아 220-0822

### ⑥ 기아모쿠 구역 모임

일시: 12월 17일(수) 오전 9시  
문의: 김 아가다 907-570-2034

### ※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12월 24일 성탄 전야 미사 - 저녁 7시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낮 미사 - 오전 10시 30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오전 10시 30분

## 기타공지

### ※ 연령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2월 21일 연령회 모임 후 점심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 여부는 각 조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故 한순애 발바라 자매님께서 11/18일 향년 95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 12월 23일(화) 10시 30분, 성당  
연도: 9시 30분



## 헌금

12월 13/14일 retirement Fund for Religious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11월 29/30일 : \$6,590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08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3,402	\$2,380	-	\$808		

<b>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b>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b>브라이언 오토 바디샵</b>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b>뷰티터치 (BEAUTY TOUCH)</b>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b>New York Life</b>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b>Ginzawon (긴자원)</b>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b>묘지매매</b>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 미사: 미사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3

미사의 구조는 시작 예식, 말씀 전례, 성찬 전례, 마침 예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이 하나의 미사가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에서 하나의 예식으로만 참된 목적인 하느님께 대한 흠숭이나 인간의 성화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공되는 미사의 구조는 단절된 예식이 아니라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이 어우러져서 일치된 공동체를 드러내는 거룩한 만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사는 사제나 신자들만이 하느님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으로서 하느님과 함께 전례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적인 행위만큼이나 모든 이들의 내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방관자적인 태도가 아닌 능동적으로 이 만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사 구조의 성경적 근거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루카 24,13-35)들과의 만남을 통해 드러납니다. 두 제자들 사이에서의 대화(시작 예식),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며 말씀을 나눔(말씀 전례), 빵을 나눔(성찬 전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쁜 소식을 전함(마침 예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미사의 기본 구조를 맛보게 합니다.

미사의 구조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임을 드러내고 있고, 미사 중에 사제들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상징과 표징)들을 통해 거룩한 소통이라는 차원으로 거행됩니다. 미사의 주체는 분명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느님 백성의 참여 없이는 완전한 미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미사 전례 안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베푸시는 은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들도 있기에 분명 미사는 대화이며, 거룩한 소통입니다. 미사의 구조는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거룩한 만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에서는 말씀과 양식이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앞당겨 보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표징이 빵을 떼어 나누고 잔을 함께 마시는 몸짓으로 응축되어 드러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알아드립니다

## ※ 대림 제2주일 강론 요약본

오늘 대림 제2주일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하나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희망, 또 하나는 그 희망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회개의 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살게 하는 힘이라고 말하며, 하느님을 ‘인내와 위로와 희망의 하느님’으로 소개합니다. 이 희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림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을 만납니다. 그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느님으로 돌리는 결단, 즉 마음의 전환(메타노이아)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요구하며, 변화의 때가 지금임을 깨우쳐 줍니다.

요한의 겸손 역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주님의 오심이 우리 안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함을 보여 줍니다.

대림 제2주일의 핵심은 희망에 마음을 열고 회개의 길을 걷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비우고, 이번 주 작은 변화 하나를 실천하며, 희망의 말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하느님,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아멘.”

권지훈 베드로 신부

###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tandseafood.com

###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